

## 7 조 이지원 장희원 조영현

### 비네트: 헌팅포차를 준비하는 준혁의 고민

준혁은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가기로 했다. 오랜만의 외출인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고 싶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헤어 왁스를 발라 머리를 세팅하고, 얼굴에는 톤업 크림을 가볍게 바르며 마무리했다. 완벽한 스타일링을 확인한 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사람이 많아 덥고 습한 공기 속에서 이마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포차에 도착할 무렵, 거울을 보니 머리 볼륨은 가라앉고, 크림이 흘러내려 얼룩덜룩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급히 화장실로 가서 휴지로 닦아보았지만, 이미 망가진 스타일은 원상복구가 어려웠다.

당황한 준혁은 주머니에서 유분·땀 방지 픽싱 스프레이를 꺼냈다. 거울을 보며 얼굴과 머리에 가볍게 분사했다. 뿌리는 순간 피부가 보송해지고, 머리 볼륨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스프레이가 빠르게 건조되면서 끈적이지도 않았다.

이제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은 준혁. 처음처럼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땀 때문에 망가진 스타일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그는 친구들과 테이블로 향하며, 오늘 밤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기 시작했다.